

네母女 시신 화순서 발견

동면 청궁리 야산 용의자 이호성 한강 투신 자살

구덩이 판 인부가 경찰 신고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에서 실종된 김모(45·여)씨와 세 딸의 시신이 실종 22일만인 10일 밤 11시경 화순군 동면의 한 공동묘지 인근 야산에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관련기사 7면> 이에 앞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온 전 해태타이거즈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41)씨는 이날 오후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이날 새벽 한강에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지 인근 야산에 비석을 세우는데 구덩이 세개를 파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덩이를 파다가 시신을 발견한 뒤 이날 밤이 구덩이를 파헤쳐 시신을 찾아냈다.

김씨와 세 딸의 시신은 가로 2m·세로 1.2m·깊이 2m의 구덩이 한 개에 한꺼번에 묻혀있었다. 김씨 등은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고, 피를 흘린 채 비닐에 싸여 4개의 가방 속에 각각 들어있었다. 이들이 묻힌 야산 옆 공동묘지에는 이씨의 선친 묘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 경찰은 김씨 모녀의 시신을 사건 수사관사인 서울 마포경찰에 곧바로 인계하기로 했다.

김씨와 세 딸은 지난달 18일 자신이



살고 있던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 실종된 뒤 22일째 행방이 묘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와 교제했던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10일 이씨를 공개수배했다.

경찰은 김씨의 큰 딸의 휴대전화가 지난달 19일 화순 남면 야산의 기지국에서 포착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일대를 수색해왔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씨는 10일 오후 3시 8분경 서울 용산구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중간지점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진 시신의 지문을 검증해 이씨의 시신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씨가 공개수사 방침이 발표된 이날 새벽 투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시신에서 유서나 지갑 등 인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으나 공중전화카드 3장과 일회용 마스크 1장, 휴대전화 배터리 1개를 수거했다. 경찰은 이씨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11일 이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자살 직전 대한야구협회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인턴기자 ahh@kwangju.co.kr /연필뉴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씨로



“사랑해요 소연 선배” 광주 출신 이소연씨가 한국 최초 우주인으로 최종 확정된 10일 오후 이씨의 모교인 광주과학고 학생과 교사들이 팔로 하트 모양을 그리며 이씨에게 힘을 보탤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육과학기술부, 고산씨 규정 위반 이유 교체

한국 최초 우주인이 고산 씨에서 광주과학고 출신 이소연(사진·29·광주시 서구 광천동)씨로 전격 교체됐다. <관련기사 8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0일 우주인관리위원회를 열어 소유즈 우주선의 탑승 우주인을 이씨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러시아 연방우주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러시아 연방우주청이 지난 7일 종합의료위원회(GMC) 결과와 훈련과정 종합결과를 토대로 최종 탑승 우주인을 고산에서 이씨로 변경해 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탑승 우주인 변경 사유에 대해 고산씨가 훈련규정을 수차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산씨가 지난해 9월 중순 외부 반출이 금지된 훈련교재를 자신의 집과 함께 한국으로 반출했다가 반납, 훈련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러시아 연방우주청이 항우연에 공식 항의했고, 지난 2월

하순에는 본인의 교육과 관련이 없는 훈련 교재를 임의로 빌려 사용하는 등 반복해 훈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러시아 우주인 2명 등과 함께 탑승함에 소속돼 훈련을 받은 고산씨와 예비팀에서 훈련을 받은 이씨는 서로 임무를 바꿔 4월 8일 발사를 앞둔 대비 훈련을 계속하게 된다.

한국인 첫 우주인은 4월 8일 오후 8시18분(현지시간 5시16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즈호를 타고 우주를 향하며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8일 동안 기초과학·교육실험 등 18가지 우주임무를 수행한 뒤 4월 19일 귀환선을 타고 카자흐스탄 초원지대로 돌아오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합종연횡’ 총선 정국 요동

압축후보·탈락후보 접촉 잇따라... 공천 새 변수로

총선 D-29

통합민주당이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 예비 후보들을 2~4배수로 압축하자, 탈락 후보들이 1차 압축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잇달아 표명해 ‘합종연횡’이 공천 가도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광주·전남지역 현역의원 가운데 30%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압축 후보들과 탈락 후보들 간 합종연

횡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광주 북구 갑의 반명환 예비 후보는 1차 압축 후보군에 포함된 장병관 전 기획예산처 장관 지지를 선언했다. 장 후보는 1차 압축 후보군에서 탈락한 예비후보 가운데 영향력 있는 다른 후보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몰밑 접촉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후보 측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예비후보들의 지지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광주 광산구 을에서도 이응섭 후보

측이 1차에서 탈락한 남평오·이영진·김홍섭 예비후보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남구에서선 지병문·정기남·서정성·이윤정 후보 등이 탈락 예비후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에서는 일부 탈락 예비 후보들이 이 서갑원 의원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해남·진도·완도 지역구에서도 유력 후보들과 탈락 후보들의 몰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1차 압축 후보군과 탈락 후보군의 합종연횡은 추후 공천 2~3차 심사 과정에서 지지율·당선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합종연횡 등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낙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종연횡 등 지역 정치권의 세력 재편이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일자리 33만개 창출

기획재정부 올 경제운용방안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성장률이 6% 내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일자리는 35만개, 물가

는 3.3% 상승, 경상수지는 70억 달러 내외의 적자가 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관련기사 4·11면>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6% 내외의 성장률과 새로운 일자리 35만개는 새정부의 당초 공약인 연평균 7% 성장·신규 일자리 60만개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하고 국내외 경기불안 요인에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 관리하기로 했으며 규제 최소화과 세율 최저화 등으로 지속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연필뉴스

전남 1차 공천 2~4배 압축

민주, 수도권 등 공천자 55명 발표

통합민주당은 10일 전남지역 1차 공천자를 2~4배수로 압축하고 최종 공천자를 가리기 위한 지역구별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여수갑의 김성근 의원과 정당인 남태룡씨 ▲여수을의 주승용 의원과 김인수 태인물산 대표 ▲북포의 이상열 의원과 배종호 전 KBS기자, 정영식 전 행사부 차관 ▲순천의 서갑원 의원과 박상철 경기대 교수, 허신행 전 농수산부 장관, 이광수 전 정동영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 등이다.

또 ▲담양·곡성·구례는 김효석 의원과 고광진 전 대한석유회 회장, 고현석 전 곡성군수 ▲장흥·영암·강진은 유선호 의원, 김영근 전 국회의장, 안종운 전 농림부차관, 김병진 전 청와대 비서관 ▲해남·진도·완도는 이영호·채일병 의원, 김영록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민화식 전 해남군수 등으로 압축됐다.

▲나주·화순의 경우 최인기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 임성훈 벤처기업인 ▲영광·함평·장성엔 이나연 의원과 이상선 전 육군군수관리 학교장 ▲광양은 우윤근 의원과 신홍섭 전 전남도의원 ▲고흥·보성은 신중식 의원과 박상천 민주당 대표, 장성민 전 의원 등이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10일 수도권 등에 대한 1차 공천자 5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공천심사위는 또 최대 관심지역인 호남권의 경우 2차 심사와 지역구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 등을 거쳐 오는 12일 1, 2위 예비후보 간 격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공천 확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합종연횡 50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신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외교·안보·통일·국방분야 유일한 전문가!!

통합민주당

으뜸복구! 행복복구!
함께 만들어요.

“백전백승 복구!!” 김동신이 열겠습니다.

학/책/사/할
- 광주출생
- 순천초고졸업
- 광주 서중-일고 졸업
- 육군사관학교간기기술업
- 서울대 권료학과 졸업

경/책/사/할
- 제39대 국방부장관
- 제33대 육군참모총장
- 현역연사령부 부사령관
- 합참 직선본부장
- 말남초 참전

훈/포/사/할
- 건국훈장
- 무공훈장
- 훈5등훈장
- 파국영포훈장
- 부국훈장 등 다수

부국감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동신 후원회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모아 큰 뜻을 이루십시오!”

www.kds21.net

社告

제30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백영훈 원장 ‘... 여성경제인의 비전과 선택’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오는 14일 오후 6시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제 30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14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이번 포럼에서는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이 강사로 나서 ‘21세기 한민족시대 여성경제인의 비전과 선택’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지역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3월 14일(금) 오후 6시
■ 장소 : 광주 신양파크호텔
■ 주제 : 21세기 한민족시대 여성경제인의 비전과 선택
■ 강사 :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41

光州日報社·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